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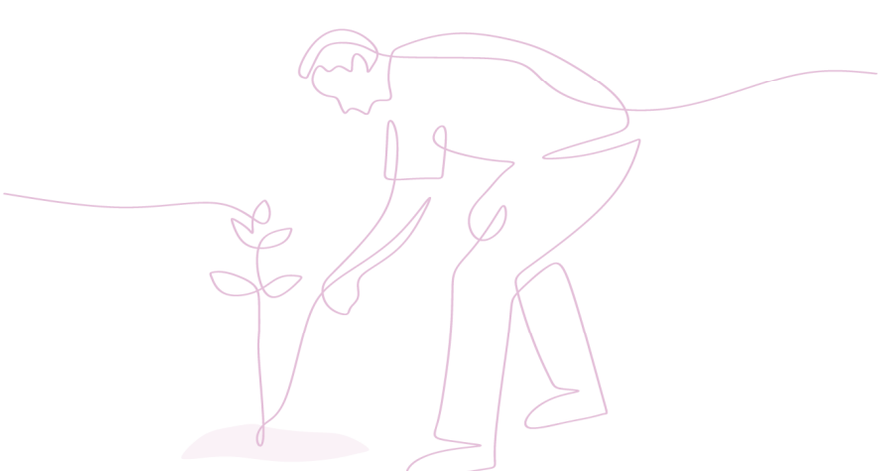
5-1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1

上昇線

상모택

상승선



5-1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1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8~31]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오늘 역시 해설 방향이 명확합니다. 9평 대비 고전소설 수업입니다. 사실 상상에서 선별해주신 건 현대소설이었는데, 제가 현대소설 '치숙'은 최근에 한 적이 있고, 고전소설은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상상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너 잘못이에요. 고전소설도 잘 냈거든요.)~~ 9평 전, 고전소설이 좀 걱정되어서 이 얘기 좀 하려고 고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능 전날이고. 고전소설이 걱정되어서 제게 "선생님 내일 고전소설에서 가장 신경 쓸 게 뭘까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딱 두 개 얘기합니다.

1) 누가 누군지 인지

- 고전소설은 누가 누군지 알아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발화건 행위건 의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학생들은 보통 인물 관계 파악만 신경쓰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호칭'이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읽으면서 얘가 누구야? 얘가 얘야? 이런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무조건 자주 나오는 호칭들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발화, 행위 의도 파악

- 계략이든 전략이든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출분석 하면서 사후적으로 연습해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합니다.

오늘은 인현왕후전입니다. 수특 연계고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작품이 맞습니다. 사실 관련 임금이 '숙종'이죠. 워낙 유명한 서사니까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의 서사는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관련 소설이 수능에 자주 등장하겠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사씨남정기입니다.(2018학년도 수능) 유 한림 = 숙종, 사씨 = 인현왕후, 교씨 = 희빈 장씨 이렇게 우의적으로 쓴 작품이죠. 또, 2022학년도에 출제된 박태보전도 숙종과 관련있는 서사입니다. 참고로 인현왕후전에서 인현왕후 폐위될 때 목숨 걸고 말리는 신하가 박태보입니다. 내용이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상상 푼 김에, 수특에 있는 지문과 상상에 있는 지문을 반드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상 지문의 경우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죠. 인현왕후는 살아 있을 때 숙종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등,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게 묘사가 됩니다. 다만 죽고 나서 혼이 되었을 때에는 희빈 장씨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수특 지문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만약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숙종의 꿈에 나왔을 때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 지문이 학습에 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 숙종의 꿈에 나왔을 때에는 희빈 장씨를 원망하며, 억울해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인현왕후전을 사후적으로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언급하는 이유. 사실 제가 만드는 파이널 이승 모의고사 1회 지문도 인현왕후전이거든요. 그것은 수특 지문과 동일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이걸 첫 회로 한 이유도 심플합니다. 인현왕후전은 아무래도 배경이 궁중이다보니, 쓰는 단어들이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란 단어가 있어요. '엄지'가 뭡니까? 만약 본인 엄지손가락 보고 있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지엄한 명령 정도의 뜻입니다. 즉 왕의 명령이죠. 이런 단어들을 최소한 수특에 있는 것들이라도 알아두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또, 호칭이 많습니다. 인현왕후를 부르는 호칭이 낭랑, 후, 민 후, 중궁 등등 많습니다.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현왕후전은 숙종, 인현왕후, 희빈 장 씨 이렇게 셋의 서사가 축입

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최소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자연스럽게 구분될 정도로는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수특 지문과 상상 지문으로 사후적으로라도 공부해두시면 연계 공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 이 지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문도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한번 볼까요. 초반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은 희빈 장 씨 거처인 취선당 가서 ~~타 조저는 내용이거 때문에(어련 건 또 우리가 잘 읽잖아요.)~~

구월 초이렛날 **석전(夕奠)**에 참례하시고 돌아오시니 가을 기운은 서늘하고 초승달이 희미한데 귀뚜라미 소리조차 일어나 심사 더욱 처량하시어 촛불을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다가 안석(安席)을 의지하여 잠깐 조시니 비몽사몽간에 죽은 내시가 앞에 와서 아뢰되,

"궁중에 사악한 잡귀와 요귀가 성하여 중궁이 **비명(非命)**에 변고를 당하시고 앞에 큰 화가 불 일듯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깊이 살피소서."

하고 손을 들어 **취선당**을 가리키며 상을 모시고 한곳에 이르니 후의 **혼전(魂殿)**이라, 전중에 중궁이 시녀를 거느리시고 앉아 계신데 안색이 참담하사 **애연(哀然)히** 통곡하시며 상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신의 명이 비록 짧사오나 독한 병에 잠기어 올해 죽을 것이 아니로되, 장 씨 천백 가지로 저주 방자하여 요얼의 해를 입어 비명한사(非命恨死)하니 장 씨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라. 원혼(冤魂)이 운간(雲間)에 비겨 한을 품었으니 당당히 장 씨의 목숨을 끊을 것이로되, 성상께서 친히 분별하사 흑백을 가려 원수를 갚아 주심을 바라오며 **요사(妖邪)**를 없이하여야 궁내가 평안하리이다."

상께서 크게 반기사 옷을 잡아 물으려 하시다가 놀라 깨달으시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시라.

촛불 그림자는 휘황하고 좌우 내시들은 장지 밖에 모셔 앉았으니 크게 슬퍼 일장통곡을 하시고 좌우더러 때를 물으시니 초경(初更)이라, 이에 옥교를 타시고 **위의(威儀)**를 다 떨으시고,

"**인적(人蹟)**과 훤화(諠譁)*를 내지 마라."

하시고 영숙궁으로 가시매, 이 궁에 행차하신 지 칠팔 년 만이시라. 누가 상께서 행차하실 줄 알았으리오!

- 단어 되게 어렵죠. 사실 알아야 되는 단어와 몰라도 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잡아봤어요. 사실 저같은 사람은 '석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서, 바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석전'은 상 중에 저녁에 제단에 제물 올리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면 누가 죽었네. 심지어 연계 공부 되어 있으면 인현왕후 죽은 이후구나가 바로 잡히는 거죠. '비명'은 Scream이 아닙니다. 제 명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살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누가 그 운명을 바꿔서 인현왕후가 일찍 죽게 되었다는 거죠. 중궁 = 인현왕후니까요. '취선당'은 희빈 장 씨의 거처고요. '혼전'은 위패를 모신 사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연히'는 알아야 합니다. '슬프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현왕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죽을 것이 아니었는데 장 씨가 저주해서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한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비명한사) 장 씨는 불공대천의 원수다. 이때 불공대천은 보통 불구대천으로도 많이 쓰이죠.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는 원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죠. '요사'는 요악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이걸 듣고 숙종이 잠에서 깨고 취선당으로 출동합니다. '위의'는 위엄있는 태도, 차림새를 얘기하고요, '인적'은 사람이 지나간 흔적 정도니까. 뒤에 훤화까지 이해해보면, 티내지 않고 조용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당연히 기습적으로 들이닥쳐야겠지요. 쉽게 말해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알게 되면 내용이 선명해집니다. 실전에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 정도의 노력은 해달라, 특히 본인이 고전소설이 약한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8.

사실확인입니다. 답이 깔끔하게 도출됩니다.

⑤ ㉤ : '전후사연'을 알게 된 데 따른 '상'의 반응이며, '상'이 ~~'장 씨'에게 이전보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군.

> 전후사연을 역력히 다 아뢰니, 상께서 새로이 ㉤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여 이르시기를,
> "범을 길러 화를 받는다는 말이 과연 이번 일 같도다. 내 장 씨를 내치지 않고 두었다가 큰 화를 자취(自取)하였으니 이도 이웃 나라에 소문이 나게 할 수 없음이라."

- 이렇게 앞뒤 맥락을 확인만 하면 바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 씨를 내치지 않고 두었다가'란 말 보자마자 이전에 가혹한 형벌을 내린 적이 없군! 하고 답 찍으시면 됩니다.

29번 문제나 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니까. 29번은 다 지우다가 ⑤ 찍으실 거고, 30번은 적어도 인현왕후가 죽었어도 '상'에게 원망을 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1.

이 문제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사실 이걸로 바꾼 겁니다. 정말 고전소설 〈보기〉 문제를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텐데, 제가 현대소설 〈보기〉와 고전소설 〈보기〉 문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론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쉽게 말해 앞 설명이 짧았던 이유가 얘가 길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소설의 〈보기〉는 '인식의 확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6.25 전쟁에 포로가 된 한 형제의 이야기를 읽고, 이걸 통해 6.25 전쟁의 폭력성, 당시 시대의 문제로 확장하길 유도하는 것이 현대소설의 일반적인 〈보기〉 내용입니다.(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할 땐,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시각과 관련된 보기라든가 그런 걸 수업 했었습니다.)

고전소설의 출제 목적은 인식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의 학문적 가치와 관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이 지문을 왜 출제했고, 특히 이 부분을 왜 냈는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대소설 〈보기〉와 고전소설 〈보기〉의 차이가 나옵니다. 현대소설의 인식의 확장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특이한 관점에 치우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전소설은 학문적 가치를 중시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보편적 가치도 제시되지만 그 작품의 특수성도 제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보편성)**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특수성)**

2026학년도 9월 모평, 이화전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특수성)**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보편성)**

2024학년도 9월 모평, 숙영낭자전

당연히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특수성이 출제 의도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결국 〈보기〉 자체가 말이 좀 어렵거나, 내용이 엄청 생소하거나, 아예 특수한 관점이 제시될 때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것과 낯선 걸 묻는 선지가 나와서 '와닿지 않는 선지'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숙영낭자전 21번 〈보기〉 문제 4번 선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가 참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는 적강은 죄를 지어 내려왔고 죄가 해소되어 다시 올라가는 거였는데, 부모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 게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닌가?란 생각이 시험장에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보기〉를 잘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특수성)**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보편성)**
>
> 2024학년도 9월 모평, 숙영낭자전

적어도 이 〈보기〉에서 이 말이 각인되어 있다면, 와닿지 않아도 답으로 고르지는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 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인현왕후전 〈보기〉 문제 역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 「인현왕후전」에서 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인의 저주 행위가 밝혀지는 장면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중시하는 당대 윤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보편성)**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장면은 주술이 지닌 힘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켜 유교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힐 수 있었고, 또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어 복선화음의 이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악행에 대한 반감과 악인에 대한 징치를 부각하거나 사건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다.**(특수성)**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아무튼 어려우면 일단 고전소설 〈보기〉 급하더라도 꼭 차분히 읽어라! 그래야 와닿지 않는 선지에서 사고가 안 난다. 단, 고전소설의 답은 거의 사실확인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두 줄 요약하겠습니다.

선지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② 중궁이 '신의 명'이 '짧'다고 '상께 고'하는 것에서, 선인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내세워 복선화음의 이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착한 중궁이 빨리 죽는 게 왜 복선화음의 이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복선화음의 이치를 구현하는 건데, 빨리 죽는 게 왜 이 한계를 보완하냐고!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는 정말 잘 낸 선지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선지입니다. 일단 지문부터 확인합니다.

"궁중에 사악한 잡귀와 요귀가 성하여 중궁이 비명(非命)에 변고를 당하시고 앞에 큰 화가 불일 듯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깊이 살피소서."

하고 손을 들어 취선당을 가리키며 상을 모시고 한곳에 이르니 후의 혼전(魂殿)이라, 전중에 중궁이 시녀를 거느리시고 앉아 계신데 안색이 참담하사 애연(哀然)히 통곡하시며 상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신의 명이 비록 짧사오나 독한 병에 잠기어 올해 죽을 것이 아니로되, 장 씨 천백 가지로 저주 방자하여 요얼의 해를 입어 비명한사(非命恨死)하니 장 씨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라.

중궁은 예정된 명보다 짧게 산 겁니다. 희빈 장 씨가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포인트는 원래 명이 짧다는 설정을 해둔 겁니다. 왜요? 복선화음의 이치를 실현하려면 중궁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인현왕후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34세 사망) 즉 역사가 스포인 소설이라는 겁니다. 〈보기〉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어' 보이시죠. 그래서 일부러 원래 빨리 죽는 설정을 해둔 것이라는 게 이 선지의 의도입니다.

정리하면, 중궁이 빨리 죽는 것으로 예정된 설정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에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을 수 없었던 한계를 보완한 설정이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 실전에서는 〈보기〉를 잘 읽었어야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뭐 안 되면 갸웃? 하면서 일단 세모치고 넘겨야되죠. 그러기라고 하려면 〈보기〉의 내용이 머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④ 궁녀들이 '야반 수라를 성대하게 차려 들'이자 '상께서 냉소하시'는 것에서, ~~저주를 행한 사실을 숨기려는 상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고전소설 〈보기〉 문제 답은 겨의 90% 사실확인으로 끝납니다. 확인합시다.

> 상께서 그 공로를 서로 다투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크게 노하시어 묵연(默然)히 관형찰색(觀形察色)*하시니, 궁녀들이 생각하되 희빈 생일이요, 중전이 아니 계셔서 찾아오신 줄만 알고 야반 수라를 성대하게 차려 들이니 상께서 냉소하시고 멀리 살펴보시매,

궁녀들은 상이 온 이유를 중궁이 없고, 희빈 생일이라 오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행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아마, 9평을 보고 오실 겁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9평 역시 수능은 아닙니다.
취해있지 마세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오래 취해있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는 기뻐하든 슬퍼하든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린 역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하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상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